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3, pp. 617-645.

<https://doi.org/10.15753/aje.2019.09.20.3.617>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가 중학생의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문찬주(文讚洙)**

이영선(李始璇)***

이지영(李持泳)

정동욱(程棟昱)****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 가정에서의 진로교육에 주목하여, 부모-자녀 간 희망 진로 일치, 즉 자녀 희망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학생의 학습 경험과 진로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기교육중단연구(GEPS)의 4-6차년도 중학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상최소사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과 함께 부모-자녀 간 희망 전공계열 일치 여부에 따른 표본 선택 편익(Sample selection bias)을 해소하고자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 양상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희망하는 전공계열 선호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계열에 따라 일치도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할 경우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학업 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할 경우, 진로발달 성과 측면에서 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녀의 진학 선택에 대한 학부모의 진로지도 역량 증진 교육과 부모-자녀 간 진로 관련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의 맥락에서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의를 장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부모-자녀 희망 전공계열, 학업 성취도, 사교육비, 진로성숙도, 경향점수매칭(PSM)

* 본 논문은 제5회 경기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jeongdw@snu.ac.kr

1. 서론

진로 결정은 청소년기 주요 발달 과제이며(안미경, 유금란, 2013),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노동시장 구조의 세분화·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학교의 진로 교육체제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최근의 공교육 정책은 학생 중심 교육을 추구하여, 학생의 주체적인 진로 및 학습 경험 선택을 장려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8). 특히 진로 전환기 학생(초6, 중3, 고1)에 대한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투입되는 가운데,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되는 등 진로탐색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진로발달의 중요성은 계속하여 증침되어 왔다.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의 진로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청소년의 진로발달에는 학교 교육 못지않게 부모와 가정환경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로 이슈는 부모-자녀 간 대화 주제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학생에게 부모는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교육부, 2015.12.29.; 선혜연, 김계현, 2008).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 진학·진로에 관한 입장은 개인 성향, 세대, 문화 등으로 인하여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한겨레, 2011.04.11.).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직업으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안정적인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생은 희망직업으로 운동선수, 요리사, 경찰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업들을 언급하는 등 학부모와 다르게 희망직업에서 풀림이 적게 나타났다(장현진 외, 2017).

위와 같이 부모-자녀 간 희망 진로의 차이가 있음에도 가정 내에서 적절히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갈등 및 비효율적인 사교육 투자가 초래될 수 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간 자녀의 희망 진로 차이는 부모 주도의 사교육 투자로 이어지는데,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강압에 의한 사교육은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동아일보, 2014.04.08.; 최윤진, 2015). 실제로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진로 결정을 맡기는 것에 회의적인데, 부모로서 자녀의 진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정서적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18.9.21.). 이외에도 부모와의 진로 갈등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맞물려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이처럼 진로에 관해 부모와 원활히 합의되지 않을 때 학생의 진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삶의 전반적인 행복까지 위협을 받고 있기에, 부모-자녀 간 진로 갈등 문제는 진로상담을 의뢰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연합뉴스, 2016.05.24.; Gati, Krausz, & Osipow, 1996).

기존의 연구는 부모의 진로지지에 주목하여 학생의 진로발달 및 학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임선아(2012)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은 경우, 청소년의 숙달접근 및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이 모두 높아지고, 학습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창훈,

조영아(2016)는 고등학생에게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자기 격려를 부분 매개로 하는 간접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진로 효능감, 학습 동기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 주목하였으며, 학업 성취도, 사교육비 등 진로준비에 따른 투입 비용 및 성과와 연관 지은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학업 성취도 등의 인지적인 능력은 개인의 진로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학생의 진로에 대한 계획성 및 태도는 학업성취와도 연관이 있으므로(Sandler, 2000; Nauta, 2007), 진로 의사결정과 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관련지은 논의 또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진로에 대한 개입은 대화 등의 형태 뿐 아니라, 사교육비 투입 등의 보다 형태로 나타나, 문제 상황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재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 진로·진학지도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청소년이 가까운 시기 마주하는 진로 의사결정인 대학 진학 및 희망 전공에 주목하였다. 먼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 진학 여부 및 전공계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부모와 자녀가 희망하는 바가 같거나 다를 때 중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간 대학 진학에 관한 의견 일치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 등 진로발달 성과 및 이와 관련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대학전공계열은 각각 어떠한가?

둘째,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가 학생의 학습 경험(학업성취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가 학생의 진로발달 성과(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중학생 진로발달과 부모의 영향

부모는 자녀의 진로 의사결정과 행동, 발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타자이다(Kush & Cochran, 1993; Otto, 2000; Turner, Alliman-Brissett, Lapan, Udipi, & Ergun, 2003). 자녀는 부모와 일상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그 속에 내포된 특정 직업에 대한 부모의 견해나 가치관을 통해 진로 정보와 신념을 정립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 및 여가 활동이 때로는 직·간접적인 진로 탐색

과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ryant et al., 2006). 또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 교육적 조언, 경제적 지원, 역할모델 제공 등은 자녀가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진로선택 및 진로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Turner et al., 2003). 특히, 자녀에 대한 가족의 유대가 깊고 관여가 빈번한 한국문화의 맥락에서는, 진로 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자신감, 독립심, 장기 계획 수립에 부모와 가족 구성원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이은경, 2001).

이처럼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대한 부모의 관여 양상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주로 부모의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을 경로로 자녀의 진로발달, 학업,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밝힌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강혜정, 2018; 안수민, 김희화, 2018; 이주희, 문은미, 2011; 최수미, 이동혁, 2017 등). 먼저, 이주희, 문은미(2011)는 부모 진로지지와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적인 진로지지 유형을 탐색하였다. 또한, 부모의 지지 혹은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양수만, 박영호, 2008; 정미나, 노자은, 2016; 정운경, 이지수, 안현선, 2017). 최수미, 이동혁(2017)은 독립성이 높은 고등학생에게는 부모지지의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하에 부모의 진로지지와 학업 성취도 간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자 고등학생에게는 부모의 진로지지와 학업 성취도 간 정적 관계가 나타나며,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히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강혜정(2018)은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정감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학교생활 만족에 주목하여, 진로발달을 통해 교내에서 학생이 느끼는 안녕감을 증진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진로지지는 학교생활 만족에 직접 효과뿐 아니라 진로 결정 자율성,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매개를 거친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한편, 부모-자녀 간 희망 진로 일치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국내 연구로 김수리(2016)는 Sawitri et al.(2012)이 개발한 부모-자녀 진로 일치 척도를 활용하여 부모-자녀 진로 일치가 대학생의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자녀 진로 일치도는 대학생의 진로낙관, 진로적응 및 노동시장 지식 습득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에게 진로 결정 시 의미 있는 타자인 부모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진로상담에서 고려할 요인의 폭을 넓혔다는 의의가 있으나, 교사, 교우 등 다른 타자와의 관계, 가구소득, 부모 학력 등 개인, 가구 특성을 통제하지 않아 통계적 엄밀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후 권다현, 연구진(2019)은 Sawitri et al.(2012)의 척도를 한국식으로 번안, 타당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요인 분석 결과 한국판 척도가 원척도와 다른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이를 통해 한국 맥락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 탐색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원하는 것과 자녀가 선택한 진로에 부모가 합의를 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면서 부모-자녀의 진로 결정에 관한 연구를 한국 맥락에서

들여다볼 필요성과 논의를 촉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국외 연구로, Sawitri, Creed와 Zimmer-Gembeck(2014)은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부모-자녀 간 진로일치가 자녀의 진로포부 및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 소결한 연구들은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발달, 학습, 학교생활 만족이 어떤 심리 변인을 매개로 연관되어 있는지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째, 다수의 연구에서 상관분석 또는 구조방정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부모-자녀 간 진로가 일치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인 분석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효과성 검증의 부재는 학교의 진로상담 및 부모 관련 진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 제언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생의 진로발달, 학교 만족, 학습 동기 등 정의적 변인에 주목하여,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본 연구가 드물었다. 그뿐 아니라, 부모 진로지지의 하위 요인으로 경제적 지지와 같은 물질적 지원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지만(이주희, 문은미, 2011), 자녀의 학업에 대한 투입 비용에 주목하여 부모의 진로 관여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미비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간 진로 일치에 대하여 자녀 또는 부모가 인지한 자기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희망전공에 대한 실제 응답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진로 일치 양상 중 하나로 중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전공이 부모와 일치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와 학생의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와 함께 학습 경험에 해당하는 학업 성취도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모형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 일치와 자녀의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사회 인지진로 이론은 진로와 관련된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설명한다. 개인의 성격, 특성, 성별, 인종·민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역할모델, 경제적 수준 등의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으로서, 진로선택 및 발달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메커니즘을 이룬다. 더불어, 사회 인지진로이론에서는 역동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인지이론(Bandura, 1986)으로부터 빌린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개인적 목표의 개념을 모형에 포함한다. 즉, 진로발달과 관련된 요소를 인지·개인적 요인들과 환경·맥락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Betz & Hackett, 1981; 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2).

초기의 사회 인지진로이론 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기개념 등으로 대표되는 인지·개인적 요인

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발달을 설명해 왔다(Lent et al., 1994).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환경적 요인들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흥미 형성, 학습 경험, 목표 선택, 수행, 성취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로선택 및 발달 과정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모형을 검증하면서 점차 환경·맥락적 변인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Lent et al., 2000),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등의 개념이 등장하며 환경·맥락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Swanson & Woitke,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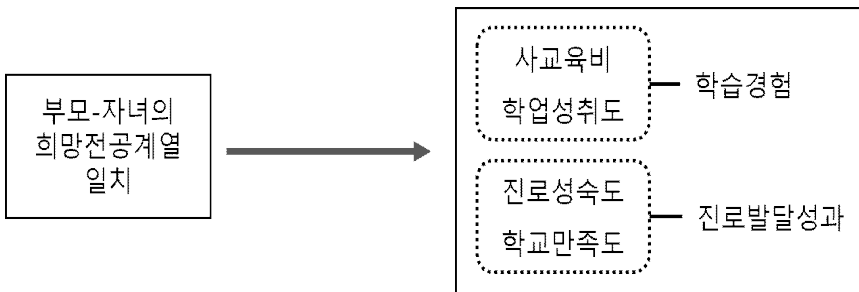
진로장벽(career barrier)은 진로발달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내·외적 요인으로서 개인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Swanson & Woitke, 1997). 그러나 사회 인지이론에서의 진로장벽은 주로 환경, 특히, 근접맥락 변인에서의 요인을 의미하며, 흥미를 목표나 실천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진로장벽이 개인의 의지 혹은 능력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권은경, 2013). 반면,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로부터 획득 가능한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다(Betz, 1989). 이는 사랑, 수용, 인정, 존중 등의 상징적 도움과 경제 지원 등의 물질적 도움을 의미하며 개인이 진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Cauce, Hannan & Sargeant, 1992; 한미현, 유안진, 1996). 한편, 인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측면에 주목하는 긍정심리학이 학계에 대두되면서, Lent와 Brown(2008)은 기존의 사회 인지진로이론에 성격·정서적 특성, 진로 만족, 삶의 만족 등과 같은 주관적 안녕감을 통합한 통합사회 인지진로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확장을 통해 환경·맥락적 변인과 인지·개인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이 진로발달을 넘어, 일상 혹은 전반적인 삶에 차별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부모-자녀 간 진로 일치는 사회 인지진로이론의 주요 환경·맥락적 요인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Otto, 2000; Turner et al., 2003).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의 진로 결정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긍정적인 진로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awitri et al, 2014), 부모와 희망 진로가 다르다면 갈등으로 작용하여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원치 않은 사교육 및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운진, 2015; Gati et al, 1996).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모-자녀 간 진로 일치 여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사회적 지지 또는 진로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집단주의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부모-자녀 진로 일치 변인이 유의하였다는 Leung, Hou, Gati, & Li (2011)의 연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성취와 진로발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족주의·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이므로(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청소년의 진로를 논할 때 부모-자녀 간 진로 일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진로발달의 환경·맥락적 변인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전공 일치 여부에 주목하였다. 70%가 넘는 고교생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장현진 외, 2017), 대학 진학 및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중학생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진로 결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희망하는 전공이 일치할 때 학생의 학습 경험과 진로발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습 경험으로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비는 일종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 투자로 볼 수 있는데 부모의 경제력 외에도 부모의 교육열, 양육방식 등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따라 사교육 투자가 달라질 수 있는바(노현경, 2006; 이성림, 2018), 부모-자녀 간 진로를 둘러싼 의사소통으로 인해 형성되는 가정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진로발달 성과로는 진로성숙도와 함께 학교만족도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학생의 진로발달은 삶의 만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진로발달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 생활 전반에서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지순, 2016; 안지혜, 임희석, 윤유동, 2016).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부모와 자녀의 희망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종의 진로장벽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은 개인의 목표 달성과 관련이 낮은 비효율적인 학습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진로발달 및 삶의 만족감이 저해될 수 있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진로 의사결정이 일치할 때는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부모와의 의사결정 합의가 자녀에게 사회적 지지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의 이론적 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모-자녀 희망전공계열 일치와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 성과 간 관계 분석틀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¹⁾

본 연구에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의 4-6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기교육종단연구는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 정책에 관하여 2012년부터 매년 수집되고 있는 패널 자료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의 학업 및 진로발달 변수와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정 및 학교 특성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패널의 특성상 경향점수매칭에 필요한 사전특성 변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본 분석에서는 GEPS 초4 코호트의 2017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조사한 6차년도 자료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부모-자녀의 희망전공계열 일치 여부를 결정할 경향점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학생의 사전특성 변인은 5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다만, 성별, 부모 학력, 부모직업과 같은 일부 변수는 4차년도 이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4차년도 자료에서 활용하였다.

2. 주요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희망 진로 일치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비,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는 경기교육종단연구에서 시행한 국어, 영어,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의 점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사교육비는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편포를 최대한 제거한 후 활용하였다. 다만, 사교육비는 관측값이 0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 경우 로그 변환된 값이 실수가 아니게 되므로 이를 보정 하기 위하여 모든 값에 0.1을 더한 후 로그로 변환하였다(이수정, 임현정, 2009).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직업 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에 관한 총 12문항의 평균값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교만족도가 학생들의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알려져(Park & Huebner, 2005) 대리변수로서 학교만족도를 사용하였으며, 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와 자녀의 대학 진학 여부 및 희망전공 일치 여부이다. 희망전공 분야에 관한 문항은 학생 설문과 학부모 설문에서 존재하여 이를 비교 확인 후 재코딩하였다. 세부적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음(미진학)’을 포함하여, 진학을 원하는 경우 전공은 ‘인문’, ‘사회’, ‘교육’,

1)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교육종단연구 홈페이지(<http://www.gje.re.kr/>)를 참고하여 작성함.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계열과 ‘사관학교·경찰대’로 구분되어 있다²⁾. 부모의 희망전공계열 응답과 학생의 희망전공계열 응답이 일치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변환하였다.

한편, 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비,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는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 배경과 학교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인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학업 성취도 분석에는 학생 개인특성으로 성별, 학업 관련 효능감, 학습시간(김소영, 김진한, 2011), 학생의 교육포부(정예화, 정제영, 2017), 사교육비(장희원, 김경근, 2015), 가구의 특성으로 모 학력,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변수용, 김경근, 2008; 정예화, 정제영, 2017), 학교 특성으로 소재 지역, 공·사립(이승호 외, 2016), 교과교실제(임유나, 김대석, 민부자, 홍후조, 2014), 저소득층 학생 비율(김소영, 김진한, 2011) 등을 투입하였다. 월 가구소득에는 자연로그를 취하였고, 모 학력, 학생과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은 연도로 변환하였다. 학생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연속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³⁾.

사교육비 분석에 활용된 통제변수는 먼저 학생의 성별과 함께 학업 성취도, 학습에 관련된 효능감이 분석에 포함되었다(노현경, 2006). 또한, 학생의 특목고·자사고 진학 계획과 수업 및 학교 교육 만족도 역시 사교육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투입하였다(박균달, 김현진, 이수정, 2011; 송경오, 2013). 가구 특성으로는 모 학력,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진, 2004; 김희삼, 2009). 또한, 학교 소재 지역, 교과교실제 시행, 학교 평균 경제 수준과 같은 학교 및 지역 환경과 교육의 질을 반영하는 특성들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김희삼, 2009; 송경오, 2013).

학교만족도 분석모형에는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도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학생이 인지한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다(정송, 이금주, 홍세희, 2014). 또한, 학교 시설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소재 지역과 설립유형,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을 나타내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 교과교실제 시행 여부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김효정, 이길재, 이정미, 2013; 이현웅, 곽윤정, 2011; 진봉, 2015; 최준열, 김지선, 2018).

진로성숙도 분석모형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들을 탐색하여 먼저, 성별, 자기효능감, 학교만족도, 학업 성취도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박완성, 2007; 이현미, 정제영, 2017; 정미나, 노자은, 2016)과 가구소득, 모 학력 등 가정배경특성을 포함하였다(원지영, 2019). 이와 함께 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타자인 교사 관계, 교우 관계 그리고 학교 특성으로서 학교의 진로진학활동을 투입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김경식, 이현철, 2012; 정미나, 노

2) 희망전공계열 문항의 선택지에는 ‘기타’라는 응답이 존재하였고, 이를 선택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였으나(학생 5.12%, 학부모 4.07%), 이는 부모와 자녀의 응답이 표면상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공명까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3) 공부 시간은 전혀 안 함(0), 30분 미만(0.25), 30분~1시간(0.75), 1시간~1시간 30분(1.25), 1시간 30분~2시간(1.75), 2시간~3시간(2.5), 3시간~4시간(3.5), 4시간~5시간(4.5), 5시간 이상(5)으로 코딩하였다.

자은, 2016). 진로진학 관련 활동은 교사 상담, 부모님 등 어른과의 대화조언, 진로 검사, 진로체험 활동, 상급학교 방문, 고교 입시설명회, 대중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등을 포함하는 11문항에 관하여 각각 학생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하였고, 참여한 활동의 개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를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1> 주요 변수 및 설명

구 분		변수 설명
종속 변수	학업 성취도	6차 년도(중3) 국·영·수 학업 성취도 수직 척도점수 평균값
	로그 사교육비	전 과목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관련 12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학교만족도	전반적인 학교만족도에 관한 문항 (5점 척도)
독립 변수	부모-자녀 희망 전공계열 일치	일치(1), 불일치(0) -전공계열 구분: '대학 미진학',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사관학교·경찰대' 9개의 영역
	성별	남학생(1), 여학생(0)
학생 특성	교과 효능감	국·영·수 과목별 효능감에 관한 15문항 평균값 (5점 척도)
	공부 시간	숙제를 포함하여 하루에 공부하는 평균 시간 (단위: 시간)
	특목고·자사고 희망	특목고·자사고 진학 희망(1), 그 외 유형 고교 희망(0)
	학생의 교육기대 연한	희망 교육 연한: 고졸 이하(12), 2-3년제 대졸(14.5), 4년제 대졸(16), 석사 졸업(18), 박사 졸업(21) (단위: 년)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4문항 평균값 (5점 척도)
	교사 관계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6문항 평균값 (5점 척도)
	교우 관계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와 관련된 6문항 평균값 (5점 척도)
	진로진학활동 참여	학교의 진로진학 관련 활동 중 학생이 참가한 활동의 개수
	가구 특성	모 학력
로그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		희망 교육 연한(년) : 고졸 이하(12), 2-3년제 대졸(14.5), 4년제 대졸(16), 석사 졸업(18), 박사 졸업(21) (단위: 년)
학교 특성	학교 소재 지역	도시지역(1), 읍면지역(0)
	학교 유형	국·공립학교(1), 사립학교(0)
	교과교실제 시행	교과교실제를 운영함(1), 운영하지 않음(0)
	저소득층 학생 비율	학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100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중학생의 학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 여부가 학생의 학습 경험 및 진로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업 성취도 제고 효과 분석과 사교육비 지출 분석, 그리고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이하 OLS)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이에 따른 분석모형은 다음 <식 1>과 같다.

$$\langle \text{식 1} \rangle y_i = B_0 + B_1 X_{1i} + B_k X_{ki} + \dots + \epsilon_i$$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업 성취도 제고 효과 분석에서 y_i 는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 개인 i 의 학업 성취도 점수, B_0 는 상수, B_1 은 중학교 3학년 학생 i 의 학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 여부의 추정계수이다. 또한 B_k 는 개인 특성, 학교 특성 등 통제 변인들의 추정계수, ϵ_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y_i 는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 개인 i 의 사교육비 지출 액수이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연구문제인 진로발달 성과 분석에서 종속변수 y_i 는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OLS 분석과 함께 표본 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해소하여 더욱 엄밀하게 효과를 추정하고자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 방식을 활용하였다.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부모와 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의 일치하는 학생 개인의 특성, 성향 및 가정 배경 변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 결정 합의 여부가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택 편의로 인한 추정오차 문제를 경향점수매칭(PSM)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경향점수매칭(PSM)은 경기도 중학교 재학생 중,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하는 집단과 일치하지 않는 집단 간의 6차년도 응답 이전, 즉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 시점의 공변인을 활용하여, 집단 간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어 보다 엄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희망전공계열 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covariate)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문승태, 김연희, 2003; 선혜연, 김계현, 2008; 황여정, 2007). 이때, 해당 공변인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더라도 해당 변인이 경향점수 예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Rubin & Thomas, 1996),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변인들도 선행연구에 근거 경향점수 추정 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접매칭(Nearest-neighborhood Matching) 중 1:3 매칭법을 실시하였다. 복원 추출(replacement)을 허용하여, 통제집단에서 한 번 활용한 사례를 중복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하여, 매칭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따른 최종 처치집단 사례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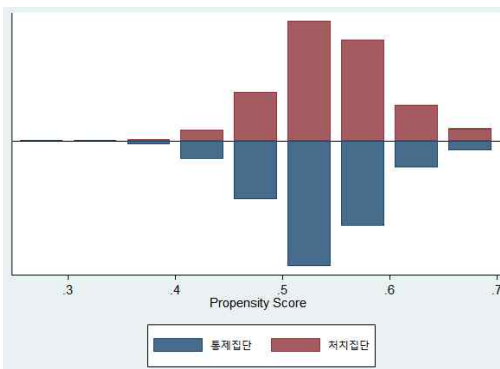
1,351명이며 통제집단 사례 수는 1,117명이다.

또한, 경향점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중요 가정인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공통영역(common support) 가정이 성립하는지 확인(권현정, 조용운, 고지영, 2011)하였고, 매칭 전후의 균형 검증(balancing test)을 시행하였다. [그림 2]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사한 경향점수를 지닌 개체들끼리 중첩되어 있어, 공통영역에 대한 가정이 성립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아래 <표 2>는 경향점수 매칭 전후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공변인 평균의 t 검정 결과이며, 매칭 후에 집단 간의 이질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그림 3]의 매칭 전후 집단 간 경향점수 분포 비교를 살펴보면, 매칭 전에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경향점수 분포가 매칭 후에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 결과에서는 OLS 분석 결과와 경향점수매칭을 시행한 후의 분석 결과를 병치하여 비교를 쉽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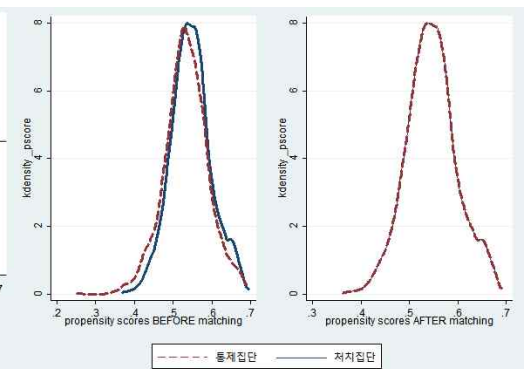
<표 2> 경향점수 매칭 전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 결과

구분	매칭 전			매칭 후		
	희망 전공 일치	희망 전공 불일치	t	희망 전공 일치	희망 전공 불일치	t
성별	0.463	0.508	-2.48**	0.464	0.463	0.05
부 학력	14.722	14.549	2.06**	14.717	14.610	1.34
모 학력	14.128	13.957	2.28**	14.123	14.058	0.91
모의직업 여부	0.634	0.653	-1.10	0.635	0.632	0.13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523.87	526.98	-0.28	524.16	516.39	0.84
사전 학업성취도 (중2)	518.84	509.37	3.28***	518.62	518.43	0.07
학생의 교육기대 연한	16.618	16.284	4.55***	16.610	16.606	0.05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	17.090	17.002	1.19	17.089	17.101	-0.17
부모-자녀 간 대화 여부	0.861	0.829	2.42**	0.861	0.862	-0.12

* p<.1; ** p<.05; *** p<.01



[그림 2] 집단 간 경향점수 공통영역 분포



[그림 3] 매칭 전후 집단 간 경향점수 분포 비교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부모와 자녀 간의 희망전공 일치 여부가 학생들의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출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망 전공계열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예체능계열(25.4%)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공학계열(19.7%), 사회계열(13.8%) 순이었다. 즉, 중학생들은 학업 위주의 전공보다 다양한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예체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자연계열(5.27%), 사관학교/경찰대(6.0%), 인문계열(6.9%)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전공계열은 공학계열(24.9%), 사회계열(17.0%), 예체능계열(16.9%) 순으로, 학생들은 예체능계열을 가장 선호했던 것과 달리, 학부모들은 학업 지향적인 공학 계열에 자녀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자연계열(5.1%)과 인문계열(5.4%)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응용학문과 비교하면 순수학문을 덜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을 진학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3%였던 것에 반해 학부모 중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0.5%에만 그쳐, 학생 중 일부는 대학 미진학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 부모-자녀 희망전공계열 일치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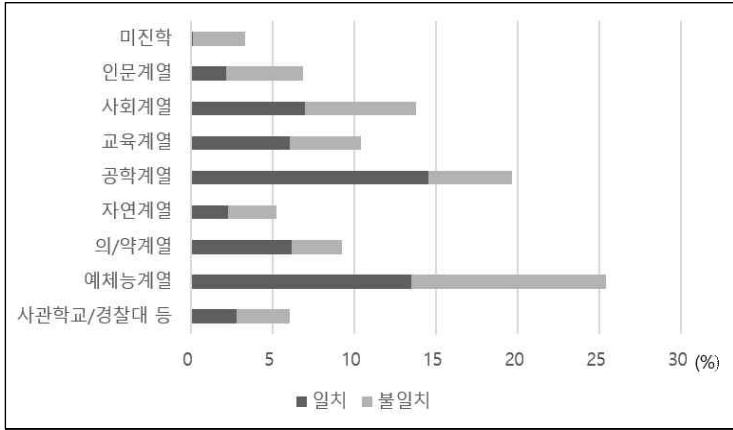
	부모-자녀 희망전공계열 일치			부모-자녀 희망전공계열 불일치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학업성취도	525.797	81.526	1,351	515.371	80.710	1,117
월평균 사교육비	44.79	35.00	885 ⁴⁾	42.79	28.63	722
진로성숙도	3.482	0.980	1,351	3.407	1.026	1,117
학교만족도	3.831	0.609	1,351	3.323	6.898	1,117
성별 (남학생=1)	0.476	0.500	1,351	0.515	0.500	1,117
교과 효능감	3.71	0.85	885	3.62	0.81	722
공부시간 (시간)	2.92	2.01	885	2.87	2.04	722
특목고자사고 희망	0.131	0.338	1,351	0.095	0.293	1,117
학생의 교육기대연한	16.609	1.970	1,351	16.259	2.013	1,117
자기효능감	3.599	0.848	1,351	3.470	0.885	1,117
교사 관계	3.694	0.869	1,351	3.647	0.872	1,117

교우 관계	4.097	0.665	1,351	4.044	0.715	1,117
진로진학활동 참여 (개수)	5.493	2.646	1,351	5.206	2.628	1,117
모학력 (연한)	14.039	2.101	1,351	13.774	2.049	1,117
월평균 가구소득	546.554	487.332	1,351	550.142	538.022	1,117
부모의 교육기대연한	17.004	2.034	1,351	16.959	2.042	1,117
학교 소재 지역 (도시=1)	0.877	0.328	1,351	0.873	0.333	1,117
학교 유형 (국공립=1)	0.935	0.247	1,351	0.923	0.267	1,117
교과교실제 시행	0.12	0.32	885	0.10	0.30	722
저소득층 학생 비율	5.272	8.121	1,351	5.383	8.439	1,117

한편, [그림 4]는 자녀의 희망전공계열을 기준으로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 일치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희망전공계열로 같은 응답을 한 경우는 공학 계열(14.6%), 예체능 계열(13.5%), 사회 계열(7.0%) 순으로, 해당 전공계열을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았던 앞선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희망하는 전공을 기준으로 부모-자녀 간 상대적인 희망전공 일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예체능계열을 희망하는 자녀가 전체의 25.4%였고, 이들의 부모 중 동일하게 예체능계열을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3.5%였으므로, 자녀가 예체능계열을 희망할 때 부모도 예체능계열을 응답한 상대적 비율을 계산하면 53.1%가 되며,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공학 계열은 74.0%가 산출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희망전공계열로 공학 계열 또는 예체능계열을 선택한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공학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부모가 같은 전공을 희망할 확률이 예체능계열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 일치 양상을 분석한 결과, 공학계열(74.0%), 의약계열(66.8%), 교육계열(58.4%)에서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 일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희망전공이 일치되는 양상은 전공계열별로 다르며, 대학 미진학의 경우 부모-자녀 간 상대적 일치 비율이 4.9% 정도로 매우 낮아, 대학 미진학 결과와 관련한 부모와 자녀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4) 월평균 사교육비, 교과 효능감, 공부 시간, 교과교실제 시행 변인들은 나머지 분석과 달리 각각 학습 경험 관련 분석에서만 활용되었으므로, 해당 분석에서 활용된 사례 수를 기준으로 함.



[그림 4] 자녀의 희망전공계열별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 일치 양상

〈표 4〉 학생과 부모의 희망전공계열 교차표

구분	부모의 희망전공계열									계	
	미진학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사관학교/ 경찰대 등		
학생의 희망 전공 계열	미진학	4 (0.16)	1 (0.04)	6 (0.24)	8 (0.32)	31 (1.26)	4 (0.16)	5 (0.20)	13 (0.53)	10 (0.41)	82 (3.32)
	인문계열	4 (0.16)	54 (2.19)	37 (1.50)	15 (0.61)	20 (0.81)	3 (0.12)	14 (0.57)	16 (0.65)	6 (0.24)	169 (6.85)
	사회계열	0 (0.00)	28 (1.13)	173 (7.01)	30 (1.22)	48 (1.94)	12 (0.49)	22 (0.89)	6 (0.24)	21 (0.85)	340 (13.78)
	교육계열	0 (0.00)	10 (0.41)	34 (1.38)	150 (6.08)	17 (0.69)	8 (0.32)	18 (0.73)	14 (0.57)	6 (0.24)	257 (10.41)
	공학계열	2 (0.08)	8 (0.32)	42 (1.70)	11 (0.45)	359 (14.55)	18 (0.73)	23 (0.93)	12 (0.49)	10 (0.41)	485 (19.65)
	자연계열	0 (0.00)	1 (0.04)	14 (0.57)	8 (0.32)	31 (1.26)	56 (2.27)	16 (0.65)	2 (0.08)	2 (0.08)	130 (5.27)
	의/약계열	0 (0.00)	2 (0.08)	19 (0.77)	15 (0.61)	23 (0.93)	6 (0.24)	153 (6.20)	8 (0.32)	3 (0.12)	229 (9.28)
	예체능계열	1 (0.04)	24 (0.97)	84 (3.40)	59 (2.39)	63 (2.55)	13 (0.53)	31 (1.26)	333 (13.49)	19 (0.77)	627 (25.41)
	사관학교/ 경찰대 등	1 (0.04)	5 (0.20)	11 (0.45)	11 (0.45)	23 (0.93)	5 (0.20)	10 (0.41)	14 (0.57)	69 (2.80)	149 (6.04)
	계	12 (0.49)	133 (5.39)	420 (17.02)	307 (12.44)	615 (24.92)	125 (5.06)	292 (11.83)	418 (16.94)	146 (5.92)	2,468 (100.00)

※ 괄호 안은 백분율을 나타냄

2. 부모-자녀 간 희망 전공계열 일치가 학습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자녀 간 전공계열 일치가 학습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 1에서는 부모-자녀 간 전공계열 일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그리고 분석 2에서는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각 분석에서 OLS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했고, 표본 선택 편의를 문제를 해소한 엄밀한 효과 추정을 위하여 PSM 분석 결과를 각각 제시했다.

<표 5> 학업성취도 및 월평균 사교육비 분석 결과

	분석1 (학업성취도)		분석2 (로그 사교육비)		
	OLS	PSM	OLS	PSM	
부모-자녀 희망전공계열 일치	2.624 (3.306)	-0.994 (3.728)	-0.099 (0.108)	-0.236** (0.118)	
성별 (남학생=1)	-26.157*** (3.357)	-25.790*** (3.851)	0.398*** (0.111)	0.202* (0.118)	
교과 효능감	24.638*** (2.253)	23.784*** (2.538)	-0.047 (0.076)	-0.059 (0.087)	
학교만족도	3.651** (1.711)	3.874** (1.972)	0.016 (0.056)	0.038 (0.066)	
개인 특성	공부 시간	3.029*** (0.887)	2.858*** (1.008)	0.171*** (0.029)	0.160*** (0.030)
학생의 교육기대 연한	3.376*** (0.941)	2.162** (1.045)	0.042 (0.031)	0.031 (0.036)	
특목고·자사고 희망	35.476*** (5.818)	32.443*** (5.460)	-0.058 (0.192)	0.158 (0.161)	
학업성취도			0.005*** (0.001)	0.005*** (0.001)	
모 학력	4.948*** (0.873)	5.136*** (0.987)	-0.005 (0.029)	-0.004 (0.034)	
가구 특성	로그 가구소득	2.453 (3.476)	4.573 (4.158)	0.848*** (0.112)	0.631*** (0.141)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	4.776*** (0.898)	5.198*** (1.106)	0.051* (0.030)	0.053* (0.030)	
로그 사교육비	4.925*** (0.757)	4.602*** (0.824)			

	학교 소재 지역 (도시=1)	15.380*** (5.012)	12.062** (5.572)	0.310* (0.164)	0.552*** (0.209)
학교 특성	학교 유형 (국공립=1)	-9.765 (6.965)	-9.040 (7.276)	0.159 (0.228)	0.403 (0.298)
	교과교실제 시행	16.067*** (5.393)	15.206*** (5.610)	-0.297* (0.177)	-0.493** (0.205)
	저소득층 학생 비율	-0.742*** (0.183)	-0.847*** (0.179)	-0.019*** (0.006)	-0.025*** (0.009)
	cons	178.894*** (26.991)	186.703*** (30.145)	-7.389*** (0.875)	-5.806*** (1.086)
	R ²	0.360	0.339	0.177	0.168
	N	1,607	1,476	1,607	1,476

* p<.1; ** p<.05; *** p<.01

먼저 분석1의 부모-자녀 간 전공계열 일치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OLS 분석과 PSM 분석 모두에서 부모-자녀 간 전공계열 일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SM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통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는 개인 특성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공부 시간이 길수록, 학생과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이 각각 높을수록, 그리고 특목고 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 학력과 사교육비 지출 역시 학업성취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학교 특성 유형에서는 학교가 도시에 소재 할수록, 교과교실제를 하는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석2의 부모-자녀 간 전공계열 일치가 월평균 가계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OLS 분석 결과에서 부모-자녀 간 희망 전공계열의 일치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PSM 분석 결과에서는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통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는 남학생일수록, 공부 시간이 길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이 길수록, 도시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다. 반면에 교과교실제를 하고,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가 학생의 학습 경험 측면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일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가 학생의 학습 경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모-자녀 간 희망 전공계열 일치가 진로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와 진로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분석 3은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에서는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먼저 분석 3의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와 학교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보면, OLS 분석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할 경우, 학교만족도가 유의수준 0.05에서 0.093만큼 높아지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표본 선택 편의를 해소한 PSM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PSM 분석 결과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할수록 0.111만큼 학교만족도가 높아졌다. 즉, 더욱 엄밀한 효과추정법인 PSM과 비교했을 때, OLS 분석에서는 효과의 크기가 과소 추정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 변인들의 경우, PSM 분석 결과에서 남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교사와 관계가 좋을수록,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일수록 학교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석4의 진로성숙도 분석 결과, OLS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할수록 유의수준 0.05에서 0.470만큼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정적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정적 효과는 PSM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유의수준 0.05에서 0.521만큼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통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특목고 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그 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하는 진로발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하여, 부모가 자녀가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때, 자녀인 학생 개인의 현재의 학교생활에 만족하게 되고, 진로성숙 역시 높아짐을 의미하는 바이다.

<표 6> 학교만족도 및 진로성숙도 분석 결과

	분석3 (학교만족도)		분석4 (진로성숙도)	
	OLS	PSM	OLS	PSM
부모-자녀 희망전공계열 일치	0.093** (0.046)	0.111** (0.053)	0.470** (0.189)	0.521** (0.255)
성별 (남학생=1)	0.188*** (0.048)	0.231*** (0.054)	-0.154 (0.199)	-0.197 (0.123)
학생의 교육기대 연한	-0.004 (0.013)	-0.014 (0.017)	0.071 (0.053)	0.097 (0.062)
개인 특성 특목고·자사고 희망	-0.180** (0.082)	-0.161* (0.088)	0.528 (0.324)	0.651* (0.385)
학업성취도	0.001*** (0.000)	0.001*** (0.000)	-0.003** (0.001)	-0.004 (0.003)

	자기효능감	0.054* (0.033)	0.058 (0.044)	-0.019 (0.133)	-0.058 (0.121)
	교사 관계	0.363*** (0.033)	0.359*** (0.041)	0.300** (0.144)	0.352 (0.289)
	교우 관계	0.051 (0.043)	0.044 (0.055)	0.224 (0.178)	0.225 (0.159)
	진로진학활동 참여			-0.017 (0.038)	-0.029 (0.053)
가구 특성	모 학력	-0.010 (0.012)	-0.017 (0.014)	-0.002 (0.050)	0.004 (0.061)
	로그 가구소득	-0.044 (0.048)	-0.051 (0.067)	0.281 (0.197)	0.368 (0.399)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	-0.021* (0.013)	-0.027* (0.015)	-0.130** (0.051)	-0.167 (0.131)
학교 특성	학교 소재 지역 (도시=1)	0.020 (0.070)	-0.046 (0.082)	-0.013 (0.292)	-0.051 (0.068)
	학교 유형 (국공립=1)	-0.035 (0.097)	0.020 (0.122)	-0.153 (0.373)	-0.188 (0.184)
	교과교실제 시행	0.199*** (0.075)	0.168** (0.081)		
	저소득층 학생 비율	-0.003 (0.003)	-0.001 (0.002)	-0.053*** (0.012)	-0.072 (0.070)
	cons	1.857*** (0.377)	2.217*** (0.496)	2.731* (1.530)	2.960* (1.553)
	R ²	0.166	0.169	0.024	0.028
	N	1,609	1,478	2,468	2,276

* p<.1; ** p<.05; *** p<.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의 진로교육이 강조되는 정책 상황 속에서 부모-자녀 간 진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때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모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교육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학생에게 진로장벽이 되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진로지지를 얻을 경우,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 성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 부모와 자녀 간에 희망하는 전공계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들은 약 3.3%였는데, 이들 중 부모가 동의하는 비율은 4.9%

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와 학습 경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볼 때,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진로발달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할 때, 학생의 진로발달 성과로서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 학교만족도 역시 일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진로 결정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일치 여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환경·맥락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진로교육에 학부모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지평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가정)의 영역까지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학 및 진로에 관한 부모-자녀 입장 간 차이는 진로장벽이 되어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에, 진로교육을 부모와 학생 개별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과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진로선택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는 공학 계열 등 응용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자녀의 경우는 예체능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대학 미진학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가 특히 낮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모의 경우, 향후 대학 졸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교육투자수익률의 관점에서 이른바 '취업이 잘 되고, 월급이 많은' 전공계열에 대한 희망이 두드러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은 특히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부모의 희망을 자녀에게 투영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유정 이, 황재원, 박지아, 2009). 그러나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간과하고 부모의 제한된 정보로 강행된 진로 설정은 부적응, 불안감, 갈등, 혼란 등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박희인, 구자경, 2011). 따라서 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진로지도와 상담을 장려해야 한다. 더불어 학벌 위주가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전문인력 중심의 사회 정책 활성화와 함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대학 진학 및 전공계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리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부모 간 진로 의사결정이 합의를 이루었을 때, 가정환경 요인이 사회적 지지로서 개인의 학습 능력 및 의지 발현에 시너지로 작용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하여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의를 장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함을 제언한다.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희망직업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초등학교급에서는 부모가 29.2%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로 진학하면서는 2위였던 '없음'이 1위(30.1%)를 차지하였고, 부모를 응답한 비중은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졌다. 또한, 희망직업을 알게 되는 경로 역시 초등학생 때는 부모가 가장 높았으나 중·고교로 진학하면서 대중매체, SNS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현진 외, 2017).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진로에 관하여 부모를 적절한 조력자로 인지하지 않을 시 학생들은 부모와의 교류를 줄이게 됨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성적·진로로 보고되고 있음에도(연합뉴스, 2016.05.24), 학생들이 부모에게서 지원을 얻지 못하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이 진로문제에 있어 부모와의 갈등 또는 방임 상황을 회피하지 않게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에 대한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2005), 학교 차원에서 이를 고려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거나 관련한 활동들을 기획한다면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부모의 진로의식 제고 및 진로지도 역량 증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설명회(진로 아카데미)와 학부모 진로코치 연수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1년 동안 시행되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진로교육 설명회(진로 아카데미)의 경우 평균 1.54회, 진로코치 연수의 경우 평균 1.13회 정도로 아직 단기적이며 일회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진로의식과 진로지도 역량 개선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을 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며, 학부모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형태의 진로교육 자료를 선호함을 고려했을 때(장현진 외, 2017), 학부모 진로교육을 학교에 일임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드림 레터(진로교육 소식지)', '진로 레시피(진로교육 오디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의 학습 및 진로발달에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학문적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논의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확장하여 희망전공계열 일치가 고교진학 후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 및 학교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학습 경험을 포함하고,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수가 세부적으로 포함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정책 및 연구에 더욱 풍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실제 부모-자녀 간에 진로에 대한 선택 및 인식이 일치하기까지 구체적인 양상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육학적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증 분석 이외에도 질적 사례연구 또는 혼합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중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발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정(2018). 고등학생의 진로관련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탐색. **진로교육연구**, 31(1), 43-62.
- 경향신문(2018.9.21.). [토요기획]“진로를 아이의 선택에 맡기라고? 그런 말 하면 엄마들한테 욕먹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11559005&code=940401&sat_menu=A071#csidx7d92c50fdadf24f8bd351e82e4e6dc9 에서 인출
- 교육부(2015.12.29.).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업무계획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장을 위한 길라잡이 학교 진로교육 운영 중학교.
- 권다현, 연규진(2019). 청소년-부모 진로 일치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6(5), 85-116.
- 권은경(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대학생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권현정, 조용운, 고지영(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 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4), 301-326.
- 김경식, 이현철(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한국교육고용패널(KEEP) 과 한국청소년패널(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4), 1079-1103.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운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2010).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소영, 김진한(2011). 학교 특성이 중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9(4), 205-229.
- 김수리(2016). 부모-자녀 진로 일치도, 적응 유연성이 대학생의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8), 29-48.
-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김효정, 이길재, 이정미(2013). 학교 구성원별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비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1), 183-209.
- 김희삼(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32(3), 27-59.
- 김희수, 홍성훈, 윤은종(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동아일보(2014.04.08.). 내 꿈은 가수인데... “수학에 한자까지 하루 9곳 학원 순례.
<http://news.donga.com/3/all/20140408/62346533/1> 에서 인출
- 문승태, 김연희(2003).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205-220.
- 박균달, 김현진, 이수정(2011). 학교불만족과 특목고 진학희망이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3), 277-304.
- 박완성(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87-101.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4), 79-113.
- 박지순(2016).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49-64.
- 박희인, 구자경(2011). 전공-적성 불일치로 인해 전공만족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4(4), 173-190.
- 변수용, 김경근(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선혜연, 김계현(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 송경오(2013).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44(1), 1-29.
- 안미경, 유금란(2013). 부모의 진로 및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9), 73-95.
- 안수민, 김희화(201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중재학회지**, 9(2), 153-174.
- 안지혜, 임희석, 윤유동(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 양수만, 박영호(2008). 중,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와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7, 165-192.
- 연합뉴스(2016.05.24.). 중고생 80% “스트레스 느껴”... 10%는 “자살도 생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164800057.HTML?input=1195m> 에서 인출
- 원지영(2019). 가구 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638-649.

-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2009).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직업능력개발 연구**, 12(3), 17-96.
- 이성림(2018). 부모의 양육유형이 사교육비지출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비지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5), 461-472.
- 이수정, 임현정(2009).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비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141-166.
- 이승호, 양민석, 한송이, 허소운, 박세준, 박대권(2016).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2), 85-113.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주희, 문은미(2011).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1), 173-188.
- 이현미, 정제영(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 이현웅, 곽윤정(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59-83.
- 이현주(2018).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임선아(2012).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과 부모의 진로선택 지지, 진로선택 역경극복 의지가 학업성취 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4), 221-238.
- 임유나, 김대석, 민부자, 홍후조(2014).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교실제 운영 효과 비교 연구. **교육문제연구**, 27(3), 77-101.
- 전화숙, 임혜정, 이기혜(2016). 서울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6(4), 97-124.
- 장현진, 민숙원, 김민경, 류지영, 김재희(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희원, 김경근(201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175-196.
- 정미나, 노자은(2016). 청소년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송, 이금주, 홍세희(2014).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학교 만족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1(7), 193-216.
- 정윤경, 이지수, 안현선(2017).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와 학업참여 및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진로교육연구**, 30(3), 1-23.
- 정예화, 정제영(2017). 초·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1-20.

- 진봉(2015).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탐색. **지방교육경영**, 18(2), 24-44.
- 최수미, 이동혁(2017).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진로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5), 295-318.
- 최윤진(2015). 대학생들의 입시 사교육 경험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5(4), 83-124.
- 최준열, 김지선(2018).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6(1), 25-51.
- 한겨레(2011.04.11.). 부모세대의 직업관으로 자녀 '진로지도' 해선 안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72343.html> 에서 인출
- 한창훈, 조영아(2016).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79-107.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1), 136-144.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
- Bryant, B. K., Zvonkovic, A. M., & Reynolds, P. (2006).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and adolescent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1), 149-175.
- Cauce, A. M., Hannan, K., & Sargeant, M. (199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Interactive effec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6), 787-798.
- Gati, I., Krausz, M. & Osipow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Kush, K., & Cochran, L. (1993). Enhancing a sense of agency through career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34-439.
- Nauta, M. M. (2007).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46-462.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 255-311.
- Leung, S. A., Hou, Z. J., Gati, I., & Li, X. (2011). Effects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cultural-values orient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1), 11-20.
- Otto, L. B. (2000). Youth perspectives on parental career influ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2), 111-118.
- Park, N., & Huebner, E. S.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44-456.
- Rubin, D. & Thomas, N. (1996). Matching Using Estimated Propensity Scores: Relating Theory to Practice. *Biometrics*, 52(1), 249-264.
- Sandler, M. E. (2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ceived stress, and an integrated model of student persistence: A structural model of finances, attitudes, behavior, and career develop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1(5), 537-580.
- Sawitri, D. R., Creed, P. A., & Zimmer-Gembeck, M. J. (2012). The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2), 210-226.
- Sawitri, D. R., Creed, P. A., & Zimmer-Gembeck, M. J. (2014). Parental influences and adolescent career behaviors in a collectivist cultural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4(2), 161-180.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 Turner, S. L., Alliman-Brissett, A., Lapan, R. T.,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36(2), 83-94.

-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7일 / 2차 심사 2019년 8월 30일 / 게재승인 2019년 9월 5일

- * 문찬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재정, 교육경제학, 교육정책 등이다.
* E-mail: cjmoon1226@gmail.com

- * 이영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정책, 교육경제학, 교육재정 등이다.
* E-mail: 20sunny@snu.ac.kr

- * 이지영: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정책, 교원교육 등이다.
* E-mail: yeonglee@snu.ac.kr

- * 경동욱: Stanford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재정, 교육경제학, 교육정책 등이다.
* E-mail: jeongdw@snu.ac.kr

Abstract

The Impact of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on Student Learning Experiences and Career Development*

Moon, Chanju **
Lee, Youngsun ***
Lee, Jiyeong
Jeong, Dongwook ****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and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and career development using 4th~6th wave data that followed 7th graders from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We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 as well as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to minimize sample selection bias.

Results are following; first, university aspiration and desired majors reported by parents and adolescents are different. The degree of congruence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is also different by majors, Second,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has an effect of decreasing shadow education spending, while not showing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Third, students who accord with their parents are more likely to show higher school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adolescent-parent conversation about career decision making to reach an agreement democratically. Further, there should be practical policy prescriptions or school programs that provide parental education on career guidance for their child and stimulate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for their smooth agreement.

Key words: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academic achievement, shadow education, career maturit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 This study is a revision based on the presentation at the 5th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Conference.

** First author,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